



대학도서관 개방 운동 ②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이화여자대학교 ‘올리버 프로젝트’

이화여대 올리버*

들어가며

대학도서관 개방 프로젝트는 2002년 9월경 재미있는 대학 공동체를 만드는 모임 “퍼니스타”에서 첫 오프라인 프로젝트로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퍼니스타가 이 의제를 들고 고민하기 훨씬 전부터 대학사회, 이화사회 안에서는 도서관 개방 담론이 간헐적으로 존재했었다. 하지만 그 담론들은 말 그대로 담론화 시도에만 그치고 이화 내에서 어떤 실물적인 흐름을 생산해 내지는 못했다. 이러한 와중에 2003년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선거운동본부들과 이화인들에게 공개 정책 제안을 퍼니스타에서 시도하면서 “도서관 개방”이라는 의제가 “다시” 이화 학생사회에 제기되었다. 이렇게 학생복지 혹은 교육의 문제와는 일면 거리가 있어 보이는 도서관 개방이라는 의제가 간헐적으로나마 계속 제

기되어왔던 것은 왜 일까? 도서관 개방이라는 의제는 대학이 사회적으로 구획 짓는 대학내부와 외부-사회-의 경계를 드러내 보이고 그것이 가지는 효과에 대한 비판과 전복을 꿈꾸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민과 논의를 거듭하면서 여성위원회와 조우하게 되었고 이는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고민해야할 바를 제시하게 되었다. 즉 이화가 가지는, 지향해야할 “여성주의적 가치”라는 것과 도서관 개방의 실천과의 접합이 그것이다. 그래서(모든 대학은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여성도서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자고 이화 학생사회에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가 고민해야할 문제들을 나열해보고 지금까지 고민과 논의의 성과를 정리해보았다.

* <http://www.funny-star.net/oliver/>, e-mail : herrerre@hanmail.net

1. 여성공간으로서의 이화를 성찰하다.

이화의 교육은 물론이고, 모든 대학의 교육은 대학에 들어온 사람들(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 그 자격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다시피 수능능력시험(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는)을 통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시험은 선전되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험이 가지는 하나의 신화다. 실상 수능을 고득점으로 통과하는 사람은 일정 이상의 사교육비를 투자한 사람들로 볼 수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¹⁾

이렇게 선별된 여성들에게만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그 외의 비대학인 여성에게는 배타적인 것이 바로 이화이고 여타의 한국 대학인 것이다. 또한 이화의 양성평등을 지향한다는 여성교육정책은 주류 남성 중심적 사회에 진입하는 여성(소위 여성 지도자)의 수적인 비율을 늘리는 것에 집중된다. 즉 남성중심의 구조의 모순을 변화시키는 움직임보다는 그 구조 속에 안정된 진입만을 강조해왔던 것이다. 이것은 교육기관 이화는 대학 안에 있는 여성만을 그 대상으로 두고있으며 대학 밖에 위치하는 '비(非)대학인 여성의 삶'은 열외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 이화가 대학 즉 교육기관으로서, 더욱이 여성교육의 산실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였는지 반성하여야 하며 그 기능을 제대로 하

기 위해서는 대학으로서의 이화는 사회적으로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2. 성별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로서의 정보 접근의 차이

그렇다면, 대학의 사회적 개방으로서의 여성주의적 실천으로서의 도서관 개방을 논하기 위해서 여성과 남성사이의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차이를 논해보자.

지금의 사회에서 정보접근권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곧바로 권력의 격차로 이어지고 이는 계급을 재생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대신에 '남성과 여성'을 '계급' 대신에 '성차'를 넣어 보자. 그럼 '지금의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정보접근의 차이가 곧바로 권력의 격차로 이어지고 성차를 재생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문장이 된다. 그렇다면, 과연 여성과 남성의 정보 접근권은 어떻게 차이가 나며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일반적으로 기혼여성은 자신에게 책을 구입할 돈을 남성에 비해 쉽게 투자하지 못한다. 그녀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이와 남편을 위한 소비를 걱정할 것이다. 또 직장 내에서 승진 시험 및 자기계발의 준비가 필요할 때를 가정해 보자. 그녀는 책 구입은 물론이요, 퇴근 후 가사 노동에 쫓겨 시험준비를 위해 도서관에 갈 시간

1) 강홍준. 강남학군 서울대 진학을 최고 타지역 10배. 『중앙일보』, 2001.04.02. p.1.

“고교 평준화 지역인 서울에서 고교를 졸업해 서울대에 진학한 비율이 25개 구정별로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중략)…학교 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과외비 지출이 많은 지역일수록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략)…이 같은 진학을 격차는 과외비 지출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 진학률이 가장 높은 강남구는 초.중.고교생 한 명당 월 평균 42만원, 서초구는 38만원의 과외비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진학률이 가장 낮은 구는 15만원대였다. 최교수는 “서울대 진학과 구정별 과외비 지출, 주인의 교육·소득 수준 등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과외비 지출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이렇듯 대학 진학자체가 투자비율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는 대학에 돈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표현이 극단적인 평가가 아님을 말해준다.

을 내지 못 할 것이다. 이렇게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못한 그녀는 업무능력에서 남성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이는 승진 등 이후 그녀의 사회적 지위와 밀접히 연관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기혼여성 중 가사노동에만 종사하는 여성을 생각해보자. 양육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녀는 아이를 떼어놓고 자유롭게 책을 읽으며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상상' 조차 할 수 있을까? 혹은 아이가 다 자라 기혼 여성 중 양육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성이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녀는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며 '평생교육'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적힌 ID카드를 들고 '공적인 공간'에 가는 것 자체를 낯설고 어려운 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공간은 오랫동안 부엌이거나 시장이었으므로.

이러한 여성의 정보접근권의 소외는 작게는 개인의 자아실현으로부터 시작하여 넓게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까지 여성의 주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즉,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느냐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차이로 나타나고 이는 이후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 및 남녀의 권력차이로 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접근권의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재생산 영역에 대한 공적 정책의 부재는 이러한 고리를 지속시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체 여성의 삶에 대학(이화)이 기여할 수 있는 그 실천전략의 하나로 도서관 개방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은 인류의 정보(여기서 우리는 도서관이 공공의 재산임을 확인한다)가 모이고 퍼져 나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정보를 대학만이 접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적 자원인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며, 그것은 새로운 권력 관계를 형성하고, 이것은 계급 재생산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지식과 교육에 있어서 소외되어 있고, 문화를 생산하고 누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도서관을 정보의 평등한 분배와 생산을 통해 권력관계의 재생산을 타파하고 새로운 관계, 구조를 생산할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우리의 실천의 중심에 둔다. 다시 말해 도서관 개방은 대학개방의 단초가 될 것이며 특히 이화에서는 여성의 정보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실천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지 '개방'이 아니라 '공유'라는 것이다. 개방이 단지 비 대학인 여성이 들어올 수 있다는 '허가' 정도의 소극적 의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녀들이 왜 도서관에 오지 못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그 기제들을 해소하는 제도들을 마련하는 것, 여기에는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재생산 영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고민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녀들이 진정 자유롭게 이화 도서관에 오갈 수 있는 적극적 의미로서의 '공유'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적극적 공유를 위한 실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3. 기존의 비대학인 여성에 대한 이화의 정책 비판과 그에 따른 적극적 실천 대안

이화의 부속기관인 평생 교육원은 '자기 발전과 자기 혁신의 의지를 가진 모든 여성들에게 지속적인 훈련과 재교육의 터전으로 활용할 수 있

게 함으로써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평생교육원의 커리큘럼이나 수강료를 보면 자기발전의 의지만 가진 모든 여성들이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이화는 단지 여성에게 도서관을 여는 것뿐 아니라 그녀들이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요구들을 제도로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테면 도서관에 책을 보러왔을 때 잠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간이탁아소' 시설이라던가, 기저귀대 설치 및 수유공간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또한 비대학인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프로그램의 생산 역시 필요할 것인데, 직장여성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강좌라든지, 지역 내 여중고생들에게 이화만의 특징인 여성학 도서관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여성주의적 입장을 담지한 성 교육등의 '딸 캠프'라든지, 아이를 둔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동화를 여성주의적으로 뒤집어 읽는 '동화구연 어머니 모임'등을 이화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화 하는 작업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신간 여성학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여성운동 단위들과 연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각 운동 단위들의 액션 제안이 도서관내에서 활발히 홍보되는 것들도 꿈꿔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단지 '꿈'만이 아니다.

중앙도서관은 1923년 정동 교사 프라이홀에서 장서 16,000권을 가지고 개관한 것을 효시로, 그 후 프라이 기념도서관으로 명명되었으며,

1935년에는 신촌캠퍼스로 이전함에 따라 교사내의 파이퍼홀로 옮겨왔으며, 그 당시에도 졸업생을 위하여 월 2회 '순회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도서관 운영을 전개하고 있었다.²⁾

이 기록을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재의 운동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이다.

나가며

이제는 현재의 오류를 반성하면서 이화를 모든 여성들의 연구의 터전, 생산의 공간, 문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학의 '달힌 교문을 여는' 프로젝트를 진행시켜야 할 때이다. 그리고 올리버 프로젝트는 공공성을 담보한 대학 개방의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이다.

올리버는 이번 학기 벽보와 온라인 선전 및 언론사와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담론화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현재 적지 않은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그것은 주로 '내 돈 냈으니 나만 쓴다'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골자로 한, 도서관을 시설 독서실쯤으로 착각하는 이들의 맹공이었다. 사실, 이들의 주장은 대단히 배타적이고 감정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이 싸움은 올리버에게 학교당국과의 협상에 있어 좀더 구체적인 개방안과 요구사항의 필요성, 즉 도서관 열람석의 부족, 탁아소 및 수유공간의 확보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의 문제를 숙제로 남겨두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역 여성과의 만남'이다. '존재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녀들. 그녀들을 만나 그네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을 이 운동의 주체로 규

2) 이화여자 대학교 홈페이지, 부속기관 안내 중 중앙도서관 편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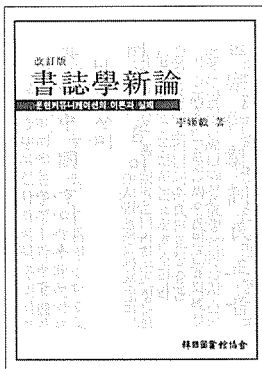
합하고 스스로가 '여성의 권리'로서 '여성도서관'을 요구하도록 하는 과정, 바로 그것이 올리버가 이 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설정한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올리버는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따나는 노력을 여류방학과 함께 시작할 것이다. 여성단체를 비롯한 외부 단위의 성명서를 받고, 신춘민회를 만나보고, 지역 사회에 뿌리내린 시민 단체들을 방문하고 서대문구 및 여성부에 예산 신청 통로를 알아보는 등의 일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그러나 운동의 과정중에 우리는 우리의 원안에는 하나들씩 연대하는 이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운동의 외연은 확장됨을 본다. 그 확장된 외연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상상하는 우리의 도서관도 다른 색깔과 다른 모양으로 긍정성을 발한다. 앞으로도 우리의 원과 교집합이 생기는 다른 원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교집합 속에 꼭 '여성'이라는 사회적 소수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더욱 좋겠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우리의 원 속에 들어오거나, 작은 원을 그려보거나. (집필 : 권한라)

개정판

改訂版 書誌學新論

李姬載 著



신국판/351쪽
ISBN 89-7678-064-7
정가 13,000원
회원보급가 10,400원

목차

- 정의 및 개념
- 연구방법의 제이론
- 연구의 전개방향, 이론과 실제
- 이론 및 방법론
- 서지목록적 측면
- 형태물리적 측면
- 포괄적인 학적, 학제적 측면

문의 : 한국도서관협회 전화 : 02-535-4868 팩스 : 02-535-5616 e-mail : w3master@korla.or.kr